

‘생산공동체’ 초대교회 꿈 키운다

‘공동출자-노동 분배’ 목사·신부도 구슬땀 최근 경영합리화 등 모색...7곳으로 확산



지난 4월15일 상계동 한 허름한 민가에서 생산공동체 ‘실과 바늘’ 개업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성공회 김성수 관구장은 “바로 이곳이...하느님의 공장”이라고 격찬했다.

했다. 목사직을 던지고 미장공으로 변신한 허병섭씨가 90년 8월 7명과 함께 시작해, 2억원(91년) 6억원(92년) 12억원(93년) 등으로 주주액을 꾸준히 늘려온 덕분이다.

대한성공회 김홍일 신부가 보조원으로 일하는 상계동의 실과 바늘, 그리고 인천 송림6동 사랑방교회의 박종렬 목사가 공장을 제공하고 주부들이 개인용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두레협업사도 지난 8월 일감이 끊겨 휴업하기까지는 노동자들에게는 흑자였다. 더욱이 짧은 노동시간과 공동체

적 작업환경 그리고, 변모해가는 의식이 앞짜 부수입이다. 봉천9동에서 개량한복과 스킨트 등을 만드는 평화의 집은 아주머니 5명이 수익금의 20%를 기금으로 빼고도 다른 곳보다 웃도는 수입이 가능해 희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중간마진을 없애는데다, 자기일이라는 확신이 빚어낸 높은 생산성이 이러한 수익의 근원이다.

하지만 고민도 많다. 일감부족이 가장 현실적 압박이다. 이밖에 실과 바늘에서는 이른바 경영미숙으로 원가계산을 못한 탓에

지나치게 싼 값에 재하청을 받는 바람에 기금적립을 미뤘다. 90년 인력소개센터로 시작했다가 92년 4월부터 6명의 공동체로 재출발한 신공덕동 마포건축은 지난해 말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을 빌미로 안기부가 사무실을 차지해 좌초한 적도 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육중한 무게로 다가서는 문제가 있다. 철거다. 미아7동에서 지난해 9월 문을 연 삼양건축의 경우 이 문제에 매달리느라 건축일은 폐업상태다. 이는 평화의 집이나 나섬건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꿈도 크다. 실과 바늘이 독자적 상표를 가진 계획 아래 경영과 디자인 계통의 지원자를 찾고 있고, 두레는 성공회 송경용 신부가 일하는 봉천9동 지역의 나섬건설과 힘을 모아 건설기업으로 정식등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마포건축은 2백가구 가량이 결집할 소비공동체를 조직해 상호연결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게다가 천주교쪽에서 지난달 말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잡아 ‘명례방 협동조합’(지도신부 이기우·777-7261)이라는 금융창구를 설립해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성직자들과 교회의 역할이 컸다.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며 연대감을 키우는 터전이 되거나, 자본조달의 벽에 부딪칠 때 보조하기도 했다. ‘기독교 도시민민선교협’ ‘천주교 도시민민사무회’ ‘천주교 도시민민회’ 등이 지금도 각 공동체 경험을 나누는 창구 노릇을 한다. 이들은 생산공동체를 교회의 새로운 모습, 아니 되려 초대교회의 이상이 실현된 곳으로 평가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상계동 실과 바늘의 김홍일 신부는 23일 “복음화 정신이 육화된 생활, 그 현상이 진정한 교회”라고 자평했다. **정인식 기자**

생산공동체. 빈민지역에서 일하는 기독교 성직자들이 최근 잔뜩 기대를 갖고 매달리는 일이다. 이 희귀한 공동체가 상상속의 그럴듯한 모형으로서가 아니라, 현실 경제라는 척박한 땅에 뿌리내릴 가능성을 내비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철거반대와 타아방·공부방·야학 등의 운영에 주력해온 이들이 ‘돈을 버는 공동체’를 본격 입에 담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부터다. 생계수단인 일자리를 찾아 뿌리없이 떠도는 도시빈민에게, 생활공동체는 공동 일자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자각에서 결성됐다. 이즈음 스페인 몬드라곤지방의 성공적 사례가 소개되기 시작해 힘을 더했다. 목회자들이 연구모임을 시작하고,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라는 번역서도 나왔다.

생산공동체는 노동자들이 공동출자해 만든다. 투여된 자본액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외에 노동량에 따라 수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기존 협동조합과 다르다. 여기서 자본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들은 돈도 없고, 유별난 기술도 없다. 건축노동·봉제·전자부품조립 등이 전부다. 23일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생산공동체를 지향하는 7곳 가운데 두레(913-7397) 마포건축(714-8152) 삼양건축(987-8280) 나섬건설(871-1596)이 건설노동을, 실과 바늘(951-2047) 평화의 집(883-3784)이 봉제공장을, 두레협업사(032-576-4039)가 전자부품조립공장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상되는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당장 동종업종보다 안정된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을 위로한다. 지난해엔 공동체의 원조적인 서울 월곡동 두레가 회원 30여명에게 평균 1백50만원의 월급을 보장